

한 학기 한 권 읽기

『화원귀 문구』

독서지도안



작성: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 독서지도안은 고즈넛이엔티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zknock>

책 소개

“귀신이라면서, 문구점에서 알바를 하겠다고요?”



공부하랴 문구점 운영하랴 바쁜 고등학생 표단비
생전에 화원이었다는 귀신 허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한국 고등학생과 조선 화원의 시대를 초월한 힐링 프로젝트!

세진고등학교 신입생 표단비는 새 학기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아버지가 덜컥 계약한 무인 문구점을 도맡아 운영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무인'이래도 학교에 학원에 동아리 활동까지 해야 하는 단비에게 문구점을 관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부와 일에 치일 때마다 단비는 엄마를 떠올린다. 엄마가 일 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실생활 노하우가 가득한 '단비 다이어리'를 남겨둔 덕에 단비는 가까스로 버틴다.

그런 단비 앞에 생전에 도화서 화원이었다는 조선시대 귀신 허현이 나타난다. 별안간 문구점에서 일하겠다고는 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못다 그린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머물겠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 단비는 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독서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쪽수
독서 전	1	생각 열기 - 『화원귀 문구』의 표지(제목과 표지 이미지)로 내용 유추하기 - 출판사 소개글과 작가의 말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4
	2	소설 속 등장인물 정리하기	6
독서 중	3~4	이별 후에 남겨지는 것	8
	5~6	친구와 나	12
	7~8	나의 삶, 꿈?	15
	9~10	책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	18
독서 후	11	‘00 다이어리’ 만들기 - 친구들과 서로를 위한 조언을 담은 다이어리 꾸며보기	21
	12	연계 활동: 독서 신문 만들기	22

1차시 — 생각 열기



1. 제목과 책 표지를 자세히 보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① 표지 이미지는 어떤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② 제목의 뜻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③ 『화원귀 문구』의 표지와 제목의 뜻을 유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④ 출판사의 소개글과 ‘작가의 말’을 읽고 『회원귀 문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잃었다는 조선시대 귀신, 무인 문구점에서 ‘알바’를 시작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 시대를 넘어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

세진고등학교 신입생 표단비는 새 학기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아빠가 털썩 계약한 무인 문구점을 도맡아 운영하게 됐으니까. 제아무리 ‘무인’이래도 학교에 학원에 동아리 활동까지 해야 하는 단비에게 문구점을 관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단비 앞에 생전에 도화서 회원이었다는 조선시대 귀신 허현이 나타난다. 별안간 문구점에서 일하겠다는 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못다 그린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만 머물렀다는데…….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 단비는 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출판사 소개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를 때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러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이별이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아프고 피하고픈 일입니다. (중략)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것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라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잘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단비와 현, 석기의 이야기가 조금씩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셜 속 인물들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원귀 문구』는 어쩌면 저에게 스스로 놓는 예방주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략)

(작가의 말)




(1) 내가 추측한 내용과 출판사의 소개글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추측한 이야기와 비슷한 점	내가 추측한 이야기와 비슷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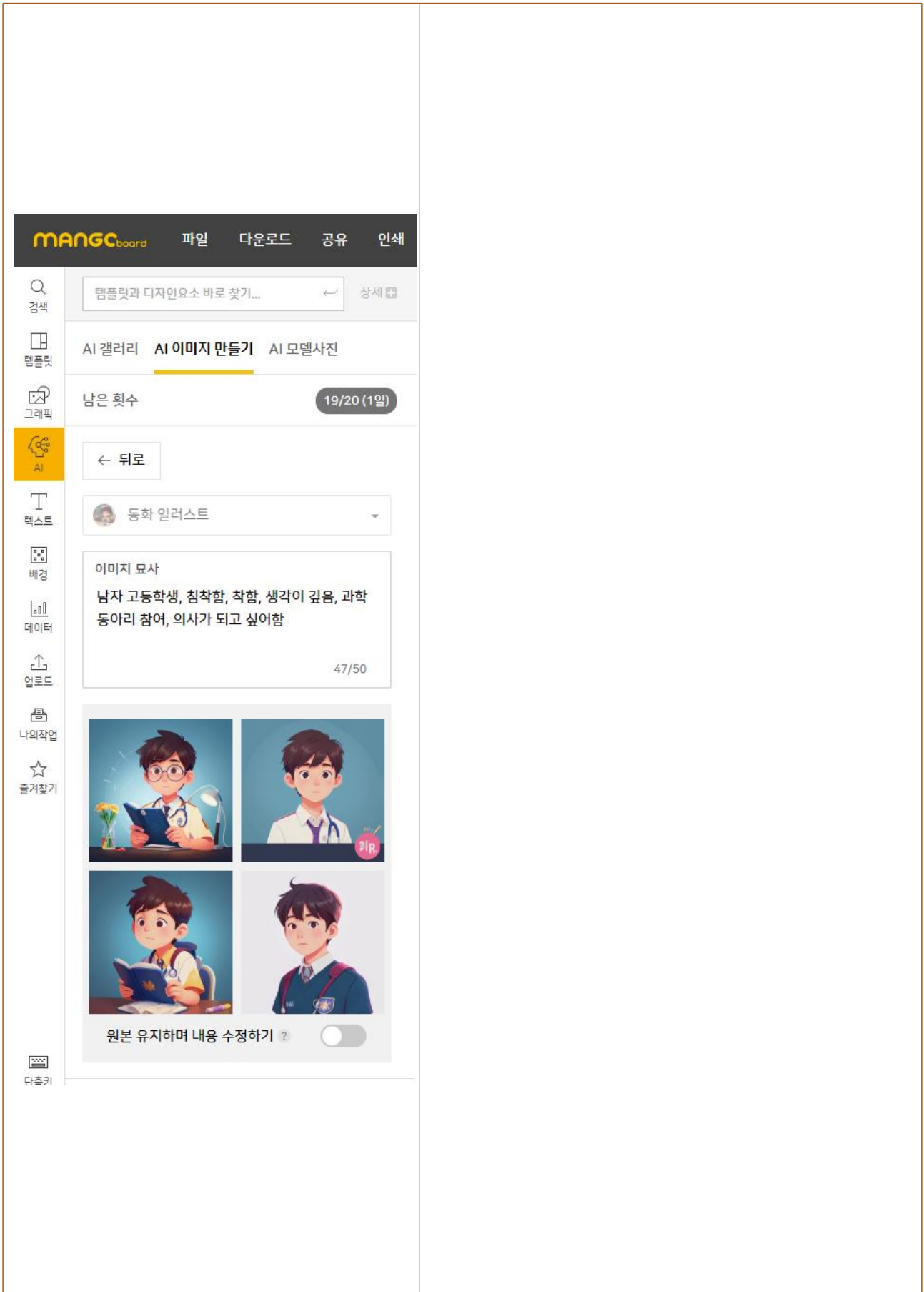
(2)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출판사의 소개글을 바탕으로 적어보세요.

2차시 — 소설 속 등장인물 정리하기

1. 『화원귀 문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뇌 구조를 그려보고, 인물의 특징, 성격, 가치관을 정리해 보세요.

	뇌 구조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단비		
석기		
환희		

2. AI 이미지 생성기에 키워드를 입력해 내가 선정한 등장인물들의 예상도를 만들어보세요.



3~4차시 — 이별 후에 남겨지는 것

『회원귀 문구』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제, ‘이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 ‘이별’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2. ‘이별’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하며 책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① 단비와 엄마

② 단비와 석기

③ 석기와 현

2.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함께 걷기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발췌하여 적어보고, 인물의 감정이 담긴 문장을 읽고 난 뒤 나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적어보세요.

페이지	'이별'에 대한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	문장을 보고 난 뒤, 나의 감정

3. 주제 확장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세요.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 장지성 씨가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 나연이를 VR을 통해 재회했다.

"나연아, 잘 있지?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과 가상현실에서 만난 엄마 장지성 씨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6일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는 장 씨가 혈액암으로 갑작스레 떠나보내야 했던 7살 난 딸을 VR(Virtual Reality) 속에서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그렸다. 감기인 줄 알고 찾았던 병원에서 셋째 딸 나연이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고, 한 달 만에 눈을 감았다. 이별 뒤에도 장 씨는 나연이의 존재를 기억하려 애썼다.

블로그에 아이를 그리워하는 글을 꾸준히 쓰고, 몸에는 나연이의 이름과 생일을 새겼다. 아이 뱃가루를 넣은 목걸이도 늘 착용하고 다녔다. '어떻게라도 한 번 보고 싶다'라는 장 씨의 바람을 위해 제작진은 VR 기술을 동원, 나연이의 얼굴과 몸, 표정, 목소리를 구현했다. 나연이의 등장엔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VR 속 나연이를 안으려고 애썼다.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여준 뒤 사랑한다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람이었던 엄마는 미역국도 주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기도 했다.

만남 이후 지성 씨는 "웃으면서 나를 불러주는 나연이를 만나 아주 잠시였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늘 꾸고 싶었던 꿈을 꾀 것 같이"라며 "나연이를 그리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면서 내 옆의 세 아이들과 많이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야 나연이를 만날 때 떳떳할 수 있으니"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겼다.

디지털 복원 과정...다양한 기술 접목

제작진에 따르면 나연이의 생전 모습을 담기 위해 모션 캡처, Si음성인식, 딥 러닝(인공신경망 기반 기계학습)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이 사용됐다. 남겨진 사진과 동영상 속의 나연이의 몸짓, 목소리, 말투 등이 재료로 활용됐다. 이후 비슷한 나이의 대역 모델을 통해 VR 속 모델의 기본 뼈대를 만들었다. 나연이의 목소리는 몇 개 없는 동영상 속 나연이의 실제 목소리를 토대로 했다. 부족한 데이터는 5명의 또래 아이 목소리를 더빙하여 '딥러닝'을 통해 채웠다. 제작 과정은 자료 수집부터 완성까지 총 7개월이 넘게 걸렸다.

관련 반응은 뜨거웠다. 유튜브 영상은 일 기준 조회 수 1,3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관심을 모았고, 전 세계 시청자의 댓글 19,000여 개가 올라왔다. '떠난 아이를 나도 만나고 싶다. 제발 VR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기술의 가능성에 놀랐다',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상 현실 속 만남에 우려를 표하는 글도 볼 수 있었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부터 '만남 이후 더 큰 슬픔과 허망함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며 휴유증을 걱정하는 반응 등이었다.

VR로 나연이를 구현한 비브스튜디오 이현석 감독은 제작팀 역시 이 부분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완성 이후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 블로그 내용과 인터뷰 등을 봤을 때 가족들이 나연이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 매우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제작팀은 어머니 장지성 씨가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에만 약 4개월 가까운 시간을 쏟았다.

이 감독은 "다큐멘터리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왜 나비가 날아와서 어머니가 맘도는지, 나연이가 왜 핑크색 가방과 슬리퍼를 신고 있는지, 왜 나연이가 엄마에게 감자꽃을 건네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모든 장치와 연결 고리들은 어머니와 나연이의 추억과 기억에서 나온 스토리 텔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디지털 휴먼 기술, 가상 현실 기술,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3D 스캐닝 기술 등의 힘을 빌려 가족분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나연이와의 만남, 애도 상담과정과 비슷'

심리학 전문가는 이런 VR을 통한 만남이 애도 상담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U마음건강연구소 고선규 교수는 "준비되지 않았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성 고통이 지난 후 제대로 된 이별(Farewell)을 하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곤 한다"며 "나연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면서 잘 가라고 작별하는 경험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도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가상현실 기술은 이미 '인간 심리 치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수는 "불안장애나 공포증 치료에서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등이 이용되고 있다"며 "VR, AR 기술로 상상을 거의 현실화하면서 불안자극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극복하는 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AR은 증강 현실로 현실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치매나 우울증 등에도 VR 등은 활용되고 있다. 게임 훈련 방식의 VR도 있지만 이번 '너를 만났다'처럼 과거 추억을 스토리텔링의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다. 영국 '더 웨이백'은 시험판으로 치매환자들을 위해 1953년 6월 있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재현했다. VR을 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 머릿속 깊숙한 곳 기억을 떠올리는 식이다.

심리 치료 영역은 아니지만 떠난 고인과 남은 가족을 연결해주는 가상 현실 기술도 있다. 지난 2016년 일본 기업 양심석재는 '스팟메시지'라는 AR을 통해 묘지 비석에 고인의 사진이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후략)

출처: 너를 만났다: '가상현실' 속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 실제 치유가 될까?, BBC 코리아, 2020년 2월 14일
<https://www.bbc.com/korean/news-51498614>

Q. 죽음과 애도, 이별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Q. '너를 만났다' 사례와 같이 갑작스레 이별한 이들과 재회하는 VR 프로그램은 대중화가 가능할까요?

5~6차시 — 친구와 나



1. 『화원귀 문구』는 단비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해 단비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인물 \ 사건			
단비			
석기			
하은			
환희			
우주			

2. 이야기 확장하기: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작성해 보세요.

42쪽	<p>급식 시간에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 하은이에 게 종종 빈정대며 놀리는 아이들 무리가 생겨났다. 유명한 일진, 이기준 무리였다. 단비가 그런 장면을 세 번째로 목격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놀림이 길어져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던 하은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이냐.” “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냐? 그럼 네 얼굴부터 어떻게 해달라고 해봐.” “요! 에이맨!” “할렐루야!”</p>	
137~138쪽	<p>생명과학실에 갔을 때는 실험이 끝났는지 우주와 조장 선배 둘만 있었다. 단비는 선배에게 눈인사를 하고 바로 장우주에게 따져 물었다. “장우주! 나는 날짜 바뀌었다고 전달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월요일에 말했는데 기억 안 나?” “월요일 언제?” “선배한테 듣고 쉬는 시간에 너한테 바로 말했어.” 단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혀 기억에 없어. 그리고 나는 목요일에 학원 있어서 만약 들었으면 목요일은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나한테 대답 듣긴 한 거야? 내가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그럼 다시 물어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냐?”</p>	
141쪽	<p>단비는 돌을 바라보는 반 아이들의 시선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에 우주는 약자로, 단비는 약자를 억박지르는 애로 보일 터였다. 하은이가 단비 곁에 다가와 팔을 잡으며 그 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자꾸만 이런 식이었다. 분명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잘못하고 있는 건 우주인데 항상 단비가 우주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다.</p>	

3. 주제 확장하기: 각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단비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우주는 그런 단비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내밀었다. “정말 밉다. 표단비. 이렇게 또 날 이겨버리네.” 단비가 티슈를 받아 들었다. (232쪽)

Q. 우주와 대화한 뒤, 단비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Q. 우주는 단비와 대화한 뒤, 왜 자신을 또 이겼다고 말했을까요?

Q. 우리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Q.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Q. '우정'을 자신의 단어와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표준국어대사전] 친구 사이의 정.

[위키피디아]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신적 유대감을 말할 때 쓰이는 용어다. 동급생, 이웃, 직장 동료 등 '지인'이나 '동맹'보다 더 강한 형태의 대인관계이다.

7~8차시 — 나의 삶, 꿈?



1. 단비와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책에 있는 경우 그대로 작성해도 좋고 없는 경우, 나름대로 상상해서 작성해 보세요.
이야기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페이지 기재).

	단비와 친구들의 꿈	이유
단비		
환희		
석기		
하은		
현		
우주		

2. 누구나 유난히 힘든 날이 있죠. 그럴 때 이 노래 어떤가요?

『회원귀 문구』의 인물들은 각자 다른 사연과 고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 선정하고, 인물에게 위로, 힘을 전해줄 수 있는 노래를 찾아 적어보세요. (내가 직접 시를 창작해도 좋습니다.)

① 내가 선정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② (인물 이름)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인물 이름)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와 선정한 이유

노래 제목:

가수: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가사:

3. 주제 확장하기

① 꿈이란 무엇인가요?

② 단비의 엄마가 단비에게 당부한 첫 번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비는 석기와의 만남으로 단비 다이어리 1번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누구보다 단비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하기.'

(253쪽)

③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9~10차시 — 책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

1. 다음은 단비가 ‘허현’에 대해서 검색한 자료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뜻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를 찾고, 사전을 활용해 정리해 보세요.

지식백과

허현

|
Q

시대: 조선 후기(19세기)
분야: 일반회화, 인물화, 기록화
직업: 도화서 화원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원이다. 호는 말로 돌아간다는 뜻의 귀마. 말을 사랑하고 사계절의 풍치를 완상하는 생활을 즐겼다. 또한, 집안 소유 사화서에서 그린 작품들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촉망받는 화원이었으나 21세 이후로 행적이 묘연하다. 사망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무슨 이유인지 가문에서 기록을 대부분 지워 자세한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실종은 당시 도화서에서 큰 사건이었고 스스로 흉기로 손을 내리쳤다가거나 눈을 찔렸다는 설도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남긴 작품이 대부분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절한 천재 화원의 유작이라는 점 때문에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아직 진위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일부 작품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화풍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산수화, 인물화, 화조도 등은 아직 연구가 계속되는 중이며 전시되지 못하고 있다. 인화 미술관에서 화원 시절에 그린 기록화가 여러 점 전시되어 있다.

[미술 지식백과] 허현(조선의 화가들, 2012.12.14.)

뜻이 궁금한 단어	단어의 의미와 활용

2. 허현과 소석기가 살던 시대는 조선 후기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모습은 어땠는지 조사해 보세요.

Q.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던 중인 허일, 신분과는 상관없이 의형제를 맺었던 현과 석기. 이들이 살아가던 조선 후기의 신분제는 실제로 어땠을까요?

출처:

Q. 조선 후기에 ‘천주교’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이야기 속에서 석기와 현이 감옥에 투옥되고 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출처:

3. 연계 독서 하기

신분제가 드러나거나, 신분제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품명	내용 요약
	선정한 이유
작품명	내용 요약
	선정한 이유

11차시 — ‘00 다이어리’ 만들기



단비의 엄마는 아빠와 남겨지게 될 단비에게 ‘단비 다이어리’를 남겨주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인간관계, 요리 레시피, 단비, 아빠, 위기 대처, 뷰티, 건강, 자산 관리, 입시, 연애, 결혼 등 각 챕터별로 단비의 인생에 필요한 여러 조언이 적혀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를 위한 조언을 담은 ‘00 다이어리’의 첫 장을 꾸며보세요.

12차시 — 연계 활동: 독서 신문 만들기

『회원귀 문구』를 읽고 난 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11차시 동안 책을 읽으며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회원귀 신문〉을 만들어보세요.